

잘 못 쓰이는 우리 말



이상통 | 본지 주간·명예문학박사

전 세계의 언어는 3천여 개가 넘는다는 데 그 중에는 문자가 없는 말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행히도 말과 글자를 함께 가진 민족으로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의 다양함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도 따라 올 수 없는 우수한 문자이다.

그러나 우리 말은 우리 한글로 나타내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번역가가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신과 느낌은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해 내지는 못한다.

아무튼 본래의 우리 말은 우리 민족 정서에 맞게 발전해 왔으나 한자어가 들어오면서부터 너무나 많이 오염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1. “인사”와 “人事”는 다른 말

(1) “인사”

우리 말 “인사”를 한자어 “人事”로 적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人事 말씀”이라는 행사 안내장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인사”와 “人事”는 전연 다른 말이다. 우리 말 “인사”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신세를 졌을 때 고맙습니다. 등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이는 순 우리 말이기 때문에 한자는 없다.

(2) ‘人事’

한자어인 ‘人事’는 사람의 짓, 사람이 다루는 일, 즉 인사 고과, 인사 관리, 인사권, 인사 이동, 인사 비밀 등으로 쓰인다.

2. 先生任은 先生님으로

편지 봉투 겉봉에 받은이 이름 밑에 先生任이니 社長任 會長任으로 쓰인 것을 흔히 보고 있다. 가당치도 않은 표현이다. ‘님’은 순수 우리 말인데 어찌다가 한자인 ‘任’으로 변신했는지 모르겠다.

3. ‘生覺’은 생각으로

금년도 모 신문 어느분 신년사에 보면 “生覺하였으며”라는 말이 나온다. ‘생각’은 순 우리 말이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이다.

4. ‘○○○님’ ‘귀하’ 겹쳐 쓰는 것은?

우편물 겉봉에 보면 흔히 ‘○○○님 귀하’라고 겹쳐 쓰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님’자를 썼으

면 ‘귀하(貴下)’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귀하’를 썼으면 ‘님’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골라서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선생님, 이○○ 총장님, 이○○ 회장님으로 쓰는 것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나 은사에겐 ‘이○○ 선생 귀하’로 쓰는 것은 물론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 선생님’이나 ‘이○○ 스승님’이 라고 쓰는 것이 예의 바른 표현이다.

5. 저희 나라는 우리 나라로

텔레비전에 나와 대답하는 고위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 가끔 저희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인품을 의심케 한다. 자기 개인을 낮추어 말할 때는 “저가” “저희”라고 말하지만 자기 나라를 어떻게 낮추어 저희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겸손도 지나치면 흠이 되는 것. 이런 겸손은 피해야 한다.

6. 선영(先塋)은 선영하(先塋下)로

신문지상 부고란에 보면 거의가 장지(葬地)는 선영이라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 손 꼽는 큰 재벌회사 회장이 타계했을 때도 광고란에 보면 장지는 ‘선영’이라 했고 얼마전 이○○ 전총재 모친상이란 신문 기사에서도 장지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선영’이라고 난 기사를 봤다. ‘선영’이란 조상의 무덤 또는 무덤이 있는 곳, 즉 선묘(先墓) 선농(先壟)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영이란 조상의 산소를 말하는데 장지가 선영이라면 엄밀히 말해 조상 산소와 합장(合葬)을 한다는 뜻이 된다.(실제로는 합장이 아님)

때문에 선영이 아니라 선영하(先塋下)로 해야 맞다. 선영 아래라는 말이다.

7. 국립공원(國立公園)은 국가 관리공원으로

우리 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국립공원이 20곳이나 되며 그 밖에 도립공원 22곳 군립공원 31곳이 있다. 국립공원이란 말은 어법(語法)이나 이치(理致)에도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대자연을 어떻게 나라가 세웠다고 하는가? 국립대학 국립연구원 등은 사리(事理)에 맞지만….

이처럼 정부에서 이름 하나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이름마저도 깔끔하지 못하니 말이다. ‘천연공원(天然公園)’ 또는 ‘자연공원(自然公園)’ 아니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 즉 ‘국가관리공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8. 산림욕(山林浴) 보다는 삼림욕(森林浴)으로

산림이란 산과 숲 곧 산에 있는 숲이다. 삼림욕은 산에 있는 숲에서 나오는 신비의 물질 ‘피톤치드’를 받는 것이다. 이 ‘피톤치드’를 받으면 뇌에서 변화가 생겨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산림치료 전문가들의 말이다.

물론 삼림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삼림욕(森林浴)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9.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는 있겠습니까로.

크고 작은 모임에 나가보면 사회자가 흔히 말하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까”라고 한다. 여기에서 새겨보면 어찌 말씀이 계시는지? 이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이 엉뚱하게도 “말씀”이 계신다로 표현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말씀이 있겠습니까. 주례사(主禮辭)가 계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례사가 있겠습니까로 해야 옳은 표현이다.

한자어(漢字語) 바로 읽기

- 솔외 -

苛斂誅求(가렴주구)

“가렴”은 심하게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것.

“주구”는 강제로 구하는 것. 따라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나쁜 정치

× 가검주구

嘉俳(가배)

한가위 곧 음력 8월 15일 이두식(吏讀式) 한자어로서의 “가위”의 취음(取音)

× 가비

伽藍(가람)

절의 판 이름

× 가감

可否間(가부간)

가하든지 불가하든지

× 가불간

刻薄(각박)

모나고 박정함

× 각부

苛酷(가혹)

매우 각박하고 혹독함

× 가곡 × 가고 × 가호

隔阻(격조)

①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왕래하지 못함

② 소식이 오래 동안 서로 막힘

× 적조 × 응조

更新(경신)

묵은 것을 고치어 새롭게 함

× 갱신

龜裂(균열)

거북이 등이 갈라진 것처럼 사이가 벌어지고 틈이 생기는 것

× 귀열

* “龜”는 지명(地名)이나 인명(人名)일 때는 “구”로 읽고 거북이라는 뜻일 때에는 “귀”로 읽고 터진다는 뜻일 때에는 ‘균’이라고 읽음

句節(귀절)

한 토막의 말이나 글

× 구절

